

“대립이 아닌 화합의 길로”

—가칭부화협회 박준영 회장께 들어본다

인터뷰/김용화 기자

□ 가칭 부화협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셨는데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정식인가까지는 많은 절차상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회장님으로 선출되신 소감과 부화협회가 생겨야 했던 동기부터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 아마 현재 양계협회를 업종별로 별도협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자는 말이 나온 것은 '83년도 양계협회 이사회에서가 아닌가 합니다. 그때 부화, 채란, 육계를 분리하여 협회를 별도로 만들고 양계협회는 이 3개 단체를 연합하는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자는 안이 통과되었다가 총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업종별로 세분화해서 협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왔지 않았나 합니다.

닭을 기른다는 점에서는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경영을 하는 최종입장에서는 매우 입장이 다른게 사실입니다. 엄밀히 보면 부화업자와 육계업자들은 상인과 고객의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같이 모여 협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때에 따라서 단합보다는 분리되는 쪽으로만 감정이 치닫게 되는 경우도 있는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뜻있는 부화업자들이 모여 더이상 양계업계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협회까지 구성하자는 합의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 대부분이 부화협회가 탄생하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감정적인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 하는 파생적 단체를 구성한게 아니냐는 점인데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 글썄, 뭐라고 표현을 해야 정확할 지 모르겠습니다. 부화업자도 육계업자나, 채란업자들이 있어야 병아리를 파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서로 공동운명을 가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부화업자가 사는 길은 우선 육계업자가 살아야 같이 사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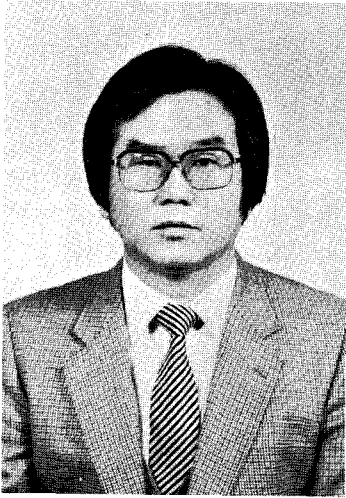
우리가 부화업자끼리 모임을 가졌다고 양계업계를 분리하여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협조적으로 나가겠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문제는 부화업자들이 지금까지 협회에 참여도 하지 않고 육계업계에서 그렇게 원하는 통계숫자 하나 처리할 수 없을 만큼 단합이 안된게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대부분 양계업자들이 닭이 몇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지도 모르고 그저 과잉생산만 안되기를 바라고 입추, 입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수급 불안정으로 가격의 진폭이 너무 큰데 폐단이 있습니다.

수급조절이 가장 용이한 업종이 그나마 부화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부화업이 계약생산되었기 때문에 품종별로 G.P.S농장에서 수급조절이 수월하게 되었지만 지금은 부화업이 양상이 달라서 G.P.S농장이 도저히 수급조절을 할 힘이 없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육계농장에서 입추조절은 더 불가능해졌습니다. 지금의 추세로 볼 때 육계업계도 단합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유통업자들도 최근 들어 도계장을 중심으로 짜임새를 갖추어 가고 있는데 유독 부화업계만이 오합지졸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부화업계도 어쨌든 모여서 단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상 모인 것뿐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박준영 회장

“
양계업계는
양적으로 보다 더
커져야 하고
커진 업계를 질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합니다.

□ 오비이락(鳥飛梨落) 격인지는 모르지만 부화업자들이 모이고 나서 병아리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고 일부에서는 담합에 의한 가격인상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박: 부화업자들은 육계업자들이 살아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화업자들이 살아야 G.P.S업자들도 살고요. 왜 부화업자들이 양계업계를 떠난 상식밖의 담합을 하겠습니까.

가뜩이나 사료가격이 인상되어 생산비에 압박을 미치고 있는데 부화업자라고 병아리 가격 인상할 생각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육계업자와 부화업자가 대립된 관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서로가 합의에 의해서 양보하며 같이 공존하는 체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 회장님으로서 단체를 이끄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군, 소군 업자들이 함께 공존하기란 쉽지만은 않을텐데 앞으로 어떤 신념으로 부화협회를 이끌어 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박: 제가 회장이 됐다고 일방적인 결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역별로 부회장제도를 정착화해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충분히 검토하여 협의를 마친 사항만 가지고 의제처리를 하겠습니다. 회원들이 정해주는 결정만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겠습니다.

회장이 일방적으로 어떤 사항을 결정한다고 회원들이 그대로 따라

오는게 아니겠습니까? 민주적인 방향으로 하향식 운영보다 상향식 운영을 통해 부화업자들이 우선은 단합하는 단체로 만들면서 기존의 양계업계내에 있는 어떤 단체와도 대화할 수 있고 협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정식 협회로 발족이 되면 좋은 사업계획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썩 양계업계가 분리되는 쪽보다는 좀 더 소득이 높아질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해 가는데 역량을 발휘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양계

부화협회 임원명단

회 장 : 박준영(한협축산)
부회장 : 서정환(대구 천호부회장), 송두진(전남 지산부회장)
배성황(충남 삼화농원), 이건일(경기북 봉림부회장)
감사 : 손종현(신진부회장), 김정웅(경성부회장)
고문 : 김진영(봉산부회장, 민정당의원)